

Morning Meeting Brief

투자포커스

10월 옵션 만기 : 매도 우위 예상

- 9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순차익 잔고는 4분기 국내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의 긍정적 기대
- 다만, 늘어난 순차익 잔고는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 요인
- 금번 만기는 3천억원 내외 물량 부담(차익 거래에서 1천 5백억원, 비차익 거래에서 1천 5백억원).
- 시장 베이스스 악화될 경우(0.90이하) 9월 만기 이후 유입된 4천억원 차익 물량 출회 가능성 낮음.

김영일, 769,2176 ampm01@daishin.com

Housing Market Analysis

[부동산 시장]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 멈춰

- 9월 수도권 주택가격은 '11.3분기 이후 하락세가 멈췄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은 1달새 1.2% 상승하여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음
- 수도권은 거래량도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했는데 주로 성북구, 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의 거래량 증가폭이 컸음. 반면 강남권 거래량은 감소했음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연말까지만 제공되므로 이들의 주택구입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수도권은 연말까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황규완, 769,3090 gwhwang@deri.co.kr

산업 및 종목 분석

파세코: 빌트인 주방 가전제품과 스토브 난로의 조화

- 리모델링 시장 성장으로 빌트인 주방가전제품 매출 본격화
-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스토브 난로 매출 증가
- 빌트인 주방가전제품 매출 확대에 분기별 실적 계절성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전망, 2013년 기준 PBR 7.1배 수준

박양주 769,2582 guevara@daishin.com

전기전자/휴대폰: 3Q&4Q13 Preview 스마트폰 이후의 준비를...

- 3Q&4Q13 Preview : 실적모멘텀 약화, 대형주 중심으로 비중확대 유효
- 14년 고성장세 유지는 사업 포트폴리오 및 거래선 다변화에 좌우될 전망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LG 전자: G2 이후에 스마트폰 기대감은 유효

- 투자 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95,000원을 유지
- 14년 스마트폰시장에서 확실한 3위 입지가 강화될 전망.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비중확대로 ASP는 상승 예상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삼성전기: 14년 신성장에 주목...

- 투자 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는 120,000원으로 하향
- 14년 무선충전 및 OIS 등 신규 시장 진출, 베트남 공장 완공 등 15년 이후에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LG 이노텍: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 투자 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는 120,000원으로 하향
- 14년 LED 수익성 개선 및 모바일 부품 매출 증가로 전체 영업이익은 2,722억원(76.3% qoq)으로 추정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삼성테크윈: 단기적으로 이익모멘텀 약화는 부담...

- 투자 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80,000원으로 하향
-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구조 변화에 주목...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파트론: 14년도 고성장세 예상.

- 투자 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4,000원 유지
- 후면용 카메라모듈 및 안테나의 ASP 상승으로 14년 전체 매출은 17.6% 이상 증가할 전망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코리아씨키트: 14년에 성장은 패키징에서 가능할 전망.

- 투자 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는 22,000원 유지
- 14년 HDI 분야에서 기술적 차별화를 유지, 패키징 분야로 사업 다각화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대덕GDS: 밸류에이션으로 접근...

- 투자 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27,000원으로 하향
- 스마트기기용 MLB PCB를 공급하는 업체로 전환, 견조한 성장세 유지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대덕전자: 14년을 기대 해보자.

- 투자 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2,500원 유지
- 14년 FC CSP 시장 진출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전망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심텍: 턴어라운드는 진행중..

- 투자 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9,500원 유지
- 13년 4Q 기점으로 수익성 턴어라운드 예상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10월 옵션 만기 : 매도 우위 예상

물량 부담 = 차익 1500억원 + 비차익 1500억원

연초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던 순차익 잔고가 9월 이후 증가. 순차익 잔고증감은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9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순차익 잔고는 4분기 국내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의 긍정적 기대로 해석. 다만, 늘어난 순차익 잔고는 단기적으로 옵션 만기까지 수급 부담 요인이 될 전망

시장 베이스에 따라 차익 물량 출회 금액은 유동적이며 만기 주 순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비차익 매매 역시 수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차익 거래에서 1천 5백억원 비차익 거래에서 1천 5백억원 가량의 물량 출회가 예상되는바 전체적으로 금번 만기는 3천억원 내외 물량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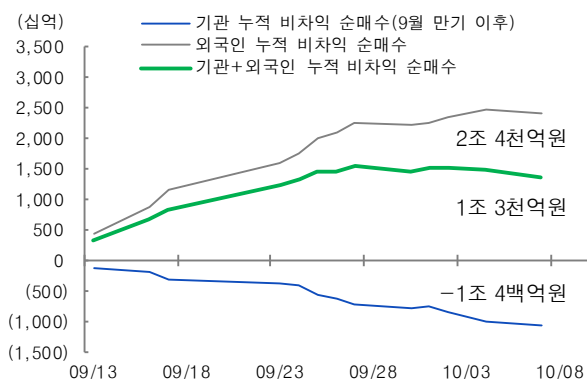
차익 매도 우위

10월 만기 예상되는 차익 물량 부담은 1천 5백억원 내외. 9월 동시 만기 이후에 유입된 3630억원 중 국내 기관(500억내외) 물량과 외국인 일부 물량이 금번 만기에 출회 가능한 차익 물량. 제 비용과 수익 구조에서 대략 1.4배 정도 수익을 내는 차익 거래를 가정한다면 시장 베이스 1.4 이하에서는 순차익으로 물량 출회가 예상되는 상황. 금번 만기 차익 물량 출회 규모는 베이스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베이스가 1.2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론 베이스 1.3수준) 만기 주 차익 물량 부담은 800~1500억원 정도로 예상.

비차익 기관 중심 매도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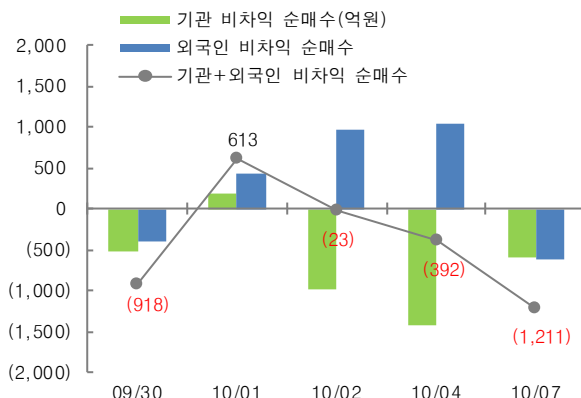
지난 주 후반부터 순매도로 전환한 비차익 매매가 수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추이로 볼 때 그 규모는 1천 5백억원 내외. 비차익 매매에서는 주식형 수익증권 일평균 감소 금액인 1천억원에 외국인 유출입 물량이 추가되는 1500억원 수준 정도가 만기 부담

그림 1. 주체별 누적 비차익 순매수(9월 만기 이후)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10월 이후 순매도를 나타내는 비차익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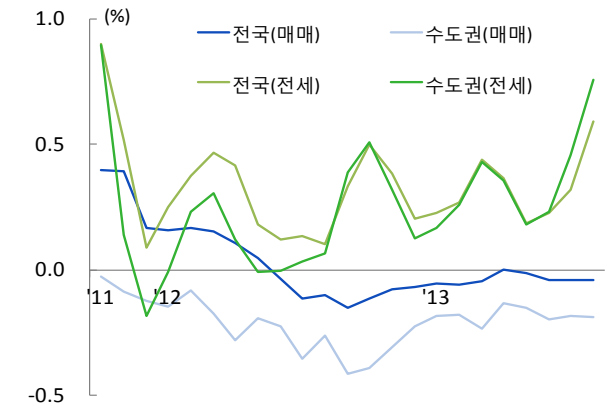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8.28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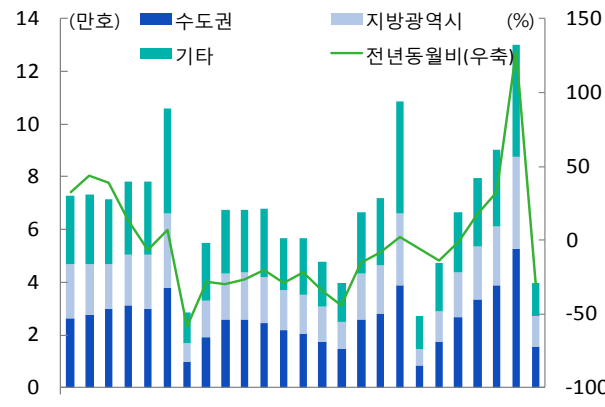
- 9월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11.3분기 이후 지속되어오던 하락세가 멈춤.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당초 우려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상승지역도 확산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은 편임. 다만, 지역별 가격 상승의 원인은 각기 다름. 강남권 가격 상승이 재건축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이 원인인 반면 안양, 동안, 성북구 등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 원인임
- 수도권의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1.2% 상승하여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했음. 지역별로는 용인수지(4.0%), 성남분당(2.7%) 등 수도권 남동부의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 강남권 전세수요자들이 이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매매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으로 굳어지지 못한 탓임. 지방광역시 전세가격은 이 지역 입주물량의 증가로 안정세를 보였음
- 수도권의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하여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임. 주간 거래량에서도 첫주차 증가율(4.4%) 보다는 5주차 증가율(36.1%)이 더 커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지역별로는 성북구(61.5%), 금천구(50.8%)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 지방광역시(Δ17.0%), 기타지방(Δ8.4%) 등은 거래량이 감소했음
- 9월은 전통적인 분양 집중기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이 증가했음. 특히 수도권에서는 민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에 공공분양까지 겹치면서 분양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세배이상 증가했음. 최근 언론 등에는 수도권 분양시장이 개선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편임. 실제 8월에는 기존 미분양 중 1,900여세대가 감소했으나 신규 미분양이 3,500여세대 등록되었음. 10월에는 우려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총 6,500여세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신규 분양은 한동안 활발할 전망이다
- 한편,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변화는 논란이 되고 있음. 정부의 시장 정상화 대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급증하는 신규분양, 거시경제 불확실성 상존 등 주변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임.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연말까지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주택구입이 늘고 있어 이들의 주택구입이 급매물 감소, 거래량 증가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음. 따라서 연말까지 수도권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동반상승이 예상된다

그림 1. 주택 매매가, 전세가 변동률



자료: KB국민은행

그림 2.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파세코 (037070)

박양주
769,2582
guevara@daishin.com

투자 의견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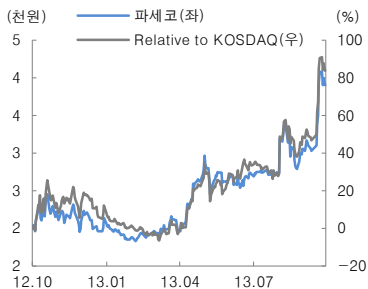
목표주가 **N/A**

현재주가 **4,450**
(13.10.7)

일반전자

KOSDAQ	528.43
시가총액	587억원
시가총액비중	0.04%
자본금(보통주)	66억원
52주 최고/최저	4,380원 / 2,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억원
외국인보유율	0.49%
주요주주	유정환 외 7인 71.5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7.3	38.6	78.7	100.0
상대수익률	25.9	36.8	86.5	99.8



빌트인 주방 가전제품과 스토브 난로의 조화

리모델링 시장 성장으로 빌트인 주방가전제품 매출 본격화

- 파세코는 빌트인 주방가전제품(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가스쿡탑 등)과 스토브 난로 제조업체로 매출비중은 빌트인 주방가전제품 40%, 스토브 난로 60%
- 주택건설 경기 바닥통과와 중소형 아파트 분양 증가추세로 빌트인 주방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음. 2013년 빌트인 매출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5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B2B 유통구조이며 자체 브랜드 판매 이외에 삼성전자, 한샘 주요 OEM 업체, 식기세척기 이외에 가스쿡탑 역시 삼성전자 OEM 매출이 두드러지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스토브 난로 매출 증가

- 스토브 난로의 매출비중은 95%이며 중동, 북미, 유럽, 러시아 지역으로 수출
- 중동지역은 높은 일교차와 사회기간시설 미흡으로 난방 및 취사용도로 스토브 난로를 사용중에 있음, 파세코의 중동지역 점유율은 60%로 추정되며 러시아의 경우 산업용 스토브 시장 성장으로 매출 증가추세에 있음
- 2013년 스토브 난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650억원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캠핑 인구 수 증가에 따라 캠핑용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0년 2,000억원에서 2013년 5,000억원으로 급성장 할 전망이다, 파세코는 2009년부터 캠핑용 난로 시장에 진출, 2009년 10억원의 매출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증가

빌트인 주방가전제품 매출 확대로 분기별 실적 계절성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매출비중 60%의 스토브 난로 매출이 3분기에 집중되어 상저하의 실적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나 빌트인 주방가전제품 매출확대로 계절성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전망, 2013년 기준 PER 7.1배 수준

- 스토브 난로 매출 집중으로 3분기 매출액 556억원(+20%, yoy) 영업이익 84억원(+50%, yoy)기록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전망
- 중동지역으로 스토브 난로 매출 증가와 러시아 지역 산업용 스토브 매출 증가가 주 요인
- 2013년 매출액 1,215억원(+15.8%, yoy), 영업이익 98억원(+92.2%), 순이익 82억원(+100%) PER 7.1배 수준 저평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 원, %)

	2010A	2011A	2012A	2013F	2014F
매출액	1,036	995	1,049	1,215	1,322
영업이익	48	31	51	98	124
세전순이익	28	18	42	89	118
총당기순이익	21	15	41	82	104
자배지분순이익	21	15	41	82	104
EPS	159	113	309	620	785
PER	18.6	19.2	7.3	7.1	5.6
BPS	3,521	3,461	3,769	3,986	5,945
PBR	0.8	0.6	0.6	1.1	0.7
ROE	4.5	3.2	8.5	16.0	15.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파세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전기전자/ 휴대폰

3Q&4Q13 Preview 스마트폰 이후의 준비를...



박강호 769,3087 jgh_park@cbstr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cbstrn.com

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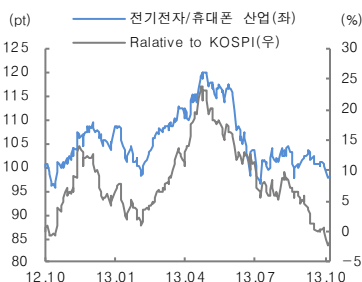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 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 의견	목표주가
LG전자	Buy	95,000
삼성전자	Buy	120,000
LG이노텍	Buy	120,000
삼성테크윈	Buy	80,000
파트론	Buy	24,000
대덕GDS	Buy	27,000
지화전자	Buy	30,0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8	0.0	-10.7	-2.5
상대수익률	-5.6	-8.1	-13.7	-2.5



3Q&4Q13 Preview : 실적모멘텀 약화, 대형주 중심으로 비중확대 유효

- 당사가 커버하고 있는 전기전자/휴대폰 업종의 3Q&4Q13년 실적은 전분기대비 둔화된 모습 예상. 삼성전자 및 글로벌 스마트폰 환경이 프리미엄 판매 둔화 및 보급형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평균공급단가(ASP) 하락으로 마진율이 2Q13년 정점으로 약화되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
- 삼성전자향 모바일 부품업체의 7개사 3Q13년 전체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20.6% 감소, 4Q13년도 전분기대비 0.8% 감소할 전망. 4Q에 갤럭시노트3, 보급형 중심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4 프리미엄 모델의 판매 둔화, 부품 공급업체 수의 증가로 업체별 마진을 개선이 약할 것으로 분석. 현재 상황은 추가적인 마진율 하락보다는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기로 판단
- 14년 이익 증가가 중소형 부품업체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주 중심으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
- 탐픽으로 LG이노텍 / 지화전자를 제시

14년 고성장세 유지는 사업 포트폴리오 및 거래선 다변화에 좌우될 전망

- 14년 전기전자/휴대폰 업종의 이슈는 1) 모바일 부품업체 중 신규 시장 진출로 평균공급단가(ASP) 상승에 따른 전체 외형 및 이익 성장 예상 분야에 주목. 이중 광학식 손떨림 보정 부품(OIS) 시장 등장으로 14년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지화전자, 파트론은 후면용 카메라모듈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14년 18% 이상의 외형 성장과 보급형 스마트폰 수요 증가의 수혜주 판단
- 2) 삼성전자 이외의 해외 거래선 개척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 나가는 기업만이 건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 13년에 생산능력을 증대한 점을 감안하면 보급형 시장 확대에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3) LG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 확대로 LG전자, LG이노텍의 수익성 호전이 지속될 여부.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중 2위권인 노키아, 블랙베리, HTC의 경쟁력 축소, 점유율 하락이 LG전자에게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 LG이노텍은 LED 수익성 개선과 LG전자향 모바일 부품의 출하량 증가, ASP 상승으로 마진을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배, %)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매출액	70,360	74,671	81,182	85,214	90,165
영업이익	1,079	2,331	2,733	3,533	3,876
세전순이익	235	1,575	2,371	3,621	3,982
총당기순이익	157	943	1,734	2,700	2,989
지배지분순이익	80	40	121	222	236
EPS	393	2,561	4,834	7,530	8,325
PER	184.0	32.0	15.9	10.2	9.2
BPS	59,467	59,575	64,090	70,103	78,769
PBR	1.1	1.3	1.1	1.0	0.9
ROE	0.6	4.1	7.4	10.6	10.6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LG전자, 삼성전자, LG이노텍, 삼성테크윈, 파트론, 지화전자, 코리아씨티, 대덕GDS, 대덕전자, 삼텍, 합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LG 전자 (066570)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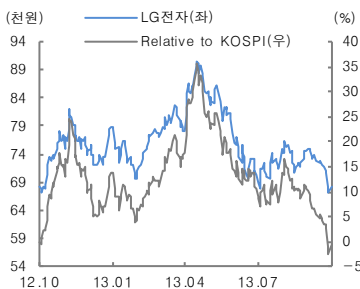
목표주가 95,000
유지

현재주가 68,300
(13.10.07)

전자전자/휴대폰 업종

KOSPI	1994.42
시가총액	11,60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99%
자본금(보통주)	8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0,400원 / 67,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67억원
외국인지분율	15.77%
주요주주	LG 33.67%
	국민연금공단 8.9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4	-2.8	-12.7	-2.1
상대수익률	-10.2	-10.7	-15.6	-2.1



G2 이후에 스마트폰 기대 감은 유효

투자 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95,000원을 유지

- LG전자에 대한 투자방향은 13년 3분기 실적 보다는 G2 효과가 반영되는 4분기, 14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M/S 증가라고 판단.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95,000원을 유지
- LG노텍을 포함한 13년 3분기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8.2%, 50%씩 증가. 분기특성상 전분기대비 각각 5.7%, 46.3%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3년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대비 낮은 이유는 G2 출시 관련한 출하량 증가대비 마케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통신(MC)부문의 영업이익율이 전분기대비 하락(2%p point)한 것에 기인. 그러나 4분기 G2 판매량이 310만대를 상회, 전사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5.2% 증가한 2,705억원으로 추정

14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실한 3위 입지가 강화될 전망.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비중 확대로 ASP는 상승 예상

- 14년 글로벌 스마트폰 환경은 LG전자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전망. 2위권인 노키아, 블랙베리, HTC 등 경쟁력 약화로 LG전자의 하드웨어 경쟁력 차별화 및 글로벌 통신사 입지간의 관계가 13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판단
- 14년 LG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7,283만대로 전년대비 42.1%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예상. 전사적인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 HA 및 AE 부문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HE(UHD TV 비중 확대) 및 MC(프리미엄급 비중 확대) 부문의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하여 14년 전사 영업이익은 1조 9,012억원으로 전년대비 40.1% 증가할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2	2Q13	3Q13(F)	YoY	QoQ	3Q13F Consensus	Difference (%)
매출액	13,282	15,232	14,368	8.2	-5.7	14,772	-2.8
영업이익	172	479	257	50.0	-46.3	302	-17.2
순이익	151	132	190	25.3	43.7	199	-4.8

구분	2011	2012	2013(F)	Growth		2013(F) Consensus	Difference (%)
				2012	2013		
매출액	54,257	55,123	58,549	1.6	6.2	59,789	-2.1
영업이익	379	1,217	1,357	221.0	11.5	1,444	-6.4
순이익	-470	67	547	흑전	718.4	583	-6.7

자료: LG전자, WISE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기 (009150)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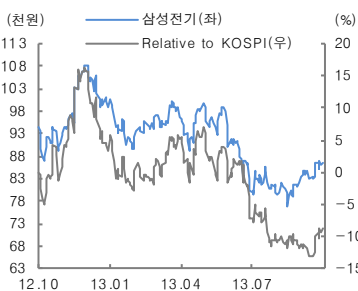
목표주가 **120,000**
하향

현재주가 **86,600**
(13.10.07)

전자전자/휴대폰 업종

KOSPI 1994.42
시가총액 6,57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6%
자본금(보통주) 37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8,000원 / 76,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31억원
외국인지분율 19.40%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5인 23.71%
국민연금공단 7.1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7	7.6	-10.4	-10.1
상대수익률	3.7	-1.1	-13.4	-10.0



14년 신성장에 주목...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는 120,000원으로 하향

- 13년 3분기 실적은 당사 및 시장 예상치를 하회, 13년 및 14년 주당순이익을 종전대비 6.7%, 4%씩 하향, 6개월 목표주가도 120,000원으로 하향.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
- 연결, 13년 3분기 매출(2조 2,293억원)과 영업이익(1,696억원)은 각각 전분기대비 6.5%, 23.7%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 종전부터 삼성전기의 3분기 실적이 전분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삼성전기만의 이익 감소보다는 모바일 부품업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분석. 때문. 삼성전자의 갤럭시S4 판매 둔화, 카메라모듈 등 모바일 부품의 매출 감소 및 판가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14년 무선충전 및 OIS 등 신규 시장 진출, 베트남 공장 완공 등 15년 이후에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초점은 13년 및 14년 실적 둔화보다는 신시장 진출을 통한 신장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삼성전기는 14년에 무선충전부품 및 손떨림보정부품(OIS, Optical Image Stabilizer) 등 신규 모바일 부품 분야 진출로 평균공급단가(ASP) 상승,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
- 또한 베트남에 대한 진출(설비투자)로 신규 매출이 2015년에 본격화, 신규사업과 기존 부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1조원~1.5조원의 매출이 발생.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베트남 공장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및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2	2Q13	3Q13(F)	YoY	QoQ	3Q13F Consensus	Difference (%)
매출액	2,183	2,385	2,229	2.1	-6.5	2,288	-2.6
영업이익	184	222	170	-7.8	-23.7	183	-7.7
순이익	139	165	129	-7.5	-21.9	140	-8.9

구분	2011	2012	2013(F)	Growth		2013(F) Consensus	Difference (%)
				2012	2013		
매출액	6,032	7,913	8,889	31.2	12.3	8,981	-1.0
영업이익	278	580	664	108.9	14.4	680	-2.4
순이익	349	441	512	26.1	16.1	512	0.0

자료: 삼성전기, WSE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LG 이노텍
(011070)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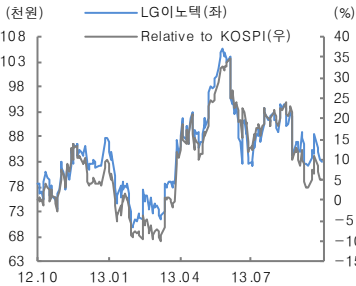
목표주가 120,000
하향

현재주가 83,100
(13.10.07)

전자전자/휴대폰 업종

KOSPI	1994.42
시가총액	1,67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4%
자본금(보통주)	10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5,500원 / 70,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51억원
외국인지분율	7.10%
주요주주	LG전자 외 1인 47.87% 국민연금공단 7.1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8	0.6	-1.9	5.5
상대수익률	-4.7	-7.5	-5.2	5.5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는 120,000원으로 하향

- LG이노텍의 13년 3분기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대비 하향 전망. 13년과 14년 주당순이익을 종전대비 각각 11.3%, 6.8%씩 하향하여 목표주가를 120,000원으로 하향.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하며, 이는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는 동시에 3분기 연속 전분기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4분기에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 연결 13년 3분기 전체 매출(1조 6,198억원)과 영업이익(509억원)은 각각 전분기대비 6.5%, 42.7%씩 증가할 전망
- LG전자의 프리미엄급 모델인 G2 및 해외 거래선 신모델 출시 영향으로 모바일 부품의 매출, 이익 증가에 기인함. 또한 LG전자향 모바일 부품이 종전대비 사양 확대로 평균공급단가(ASP) 상승, 물량 증가로 마진율이 점차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

14년 LED 수익성 개선 및 모바일 부품 매출 증가로 전체 영업이익은 2,722억원(76.3% qoq)으로 추정

- 14년에 LED 부문의 제품 비중 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 TV BLU 향보다는 조명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로 적자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판단. 조명향 매출 비중은 12년말 19%에서 13년 25%, 14년 33%를 넘어서는 동시에 TV BLU향도 UHD 비중 증가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 LG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도 14년 프리미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LG이노텍의 마진 개선에 기여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
-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13년(1,544억원)은 전년대비 99.9% 14년(2,722억원)은 전년대비 76.3% 증가하는 등 11년 적자(668억원)를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수익성은 호전되고 있음

(단위: 십억원 %)

구분	3Q12	2Q13	3Q13(F)	YoY	QoQ	3Q13F Consensus	Difference (%)
매출액	1,220	1,521	1,620	32.8	6.5	1,633	-0.8
영업이익	25	36	51	101.8	42.7	50	2.4
순이익	4	7	29	711.6	320.4	22	23.4

구분	2011	2012	2013(F)	Growth		2013(F) Consensus	Difference (%)
				2012	2013		
매출액	4,553	5,316	6,375	16.8	19.9	6,396	-0.3
영업이익	-67	77	154	흑전	99.9	150	2.9
순이익	-145	-25	60	적지	흑전	50	16.0

자료: LG이노텍, WSDN, 대산증권 리서치센터

삼성테크윈 (012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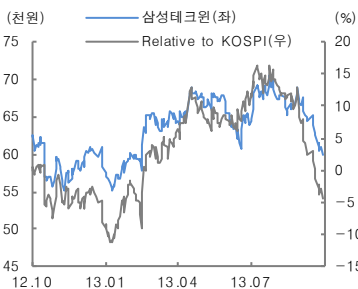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목표주가 80,000
하향
현재주가 (13.10.07) 60,000

전자전자/휴대폰 업종

KOSPI 1994.42
시가총액 3,18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7%
자본금(보통주) 26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0,500원 / 55,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8억원
외국인지분율 18.42%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7인 32.53%
한국투자신탁운용 7.7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0	-6.1	-6.4	-5.5
상대수익률	-11.8	-13.7	-9.5	-5.5



단기적으로 이익모멘텀 약화는 부담...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80,000원으로 하향

- 삼성테크윈의 13년 3분기 실적은 당사 및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13년 및 14년 주당순이익을 종전대비 각각 8%, 5.1%씩 하향하여 목표주기도 80,000원으로 하향. 투자 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하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접근이 유효할 전망
- 이는 13년 하반기 실적 둔화가 주가에 다소 부담될 것으로 전망되나 에너지 및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신규 시장 개척, 시큐리티 솔루션(SS)의 제품 믹스 통한 수익성 호전 추세가 연간 기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 연결, 13년 3분기 전체 매출(7,859억원)과 영업이익(511억원)은 전분기대비 각각 0.9% 증가, 16% 감소할 전망. 반도체 장비(중속기 중심의 칩마운터)의 수출이 예상대비 둔화되면서 동 부문의 매출이 전분기대비 24.6% 감소할 것으로 추정.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인으로 추정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구조 변화에 주목...

- 삼성테크윈에 대한 투자 초점은 1) 장기적인 사업구조의 변화임. 동사는 가스압축기 등 에너지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회사의 전략적인 제휴 추진 그룹 관계사간의 협업을 통해서 14년 이후에 매출 증가 및 이익 개선이 높을 것으로 추정. 14년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0.1%, 21.3%씩 증가할 전망. 특히 13년과 14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0%씩 성장하는 점도 구조조정 이후에 수익구조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
- 2) 제품 믹스 변화도 14년 이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반도체 장비분야는 고속 칩 마운터 중심으로 신규 매출 확대, 시큐리티 솔루션(SS)은 네트워크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

구분	3Q12	2Q13	3Q13(F)	YoY	QoQ	3Q13F Consensus	Difference (%)
매출액	692	779	786	13.7	0.9	836	-6.4
영업이익	37	61	51	37.1	-16.0	63	-24.0
순이익	34	64	50	46.0	-22.5	58	-17.9

구분	2011	2012	2013(F)	Growth		2013(F) Consensus	Difference (%)
				2012	2013		
매출액	2,948	2,935	3,082	-0.4	5.0	3,164	-2.7
영업이익	89	156	191	74.6	22.1	206	-8.3
순이익	231	131	197	-43.2	50.3	211	-6.9

자료: 삼성테크윈 W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파트론 (091700)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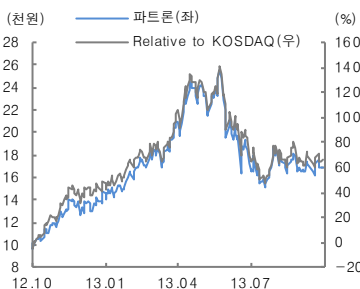
목표주가 **24,000**
유지

현재주가 **16,950**
(13.10.07)

전자전자/휴대폰 업종

KOSDAQ 528.44
시가총액 91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75%
자본금(보통주) 2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5,700원 / 9,79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44억원
외국인지분율 23.08%
주요주주 김중구 외 6인 25.0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3	-2.0	-19.6	63.5
상대수익률	-1.2	-2.6	-16.7	65.8



14년도 고성장세 예상.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24,000원 유지

- 파트론의 13년 3분기 실적은 당사 및 시장 추정치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 투자의견은 '매수 (BUY)' 및 목표주가 24,000원을 유지
- 연결 13년 3분기 전체 매출(2,869억원)과 영업이익(325억원)은 각각 전분기대비 9.8%, 15.9%씩 감소하나 전년동기대비(별도기준) 10.9%, 17.9%씩 증가할 전망
- 3분기 실적 감소의 배경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4 판매 약화로 고화소급 중심의 카메라모듈, 안테나 매출이 전분기대비 출하량이 감소한 것에 기인 이는 파트론의 문제보다는 전체 모바일 부품업체의 실적 추세와 동행하는 것으로 판단

후면용 카메라모듈 및 안테나의 ASP 상승으로 14년 전체 매출은 17.6% 이상 증가할 전망

- 파트론에 대한 투자 초점은 13년 4분기 및 14년 매출 성장세가 다른 모바일부품업체와 비교할 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주목하는 것임. 14년 전체 매출은 1조 3,6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할 전망, 14년 영업이익률도 1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
- 삼성전자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와 연동되는 매출 구조, 후면용 카메라모듈 시장 참여로 14년에 카메라모듈 분야의 평균공급단가(ASP) 상승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 삼성전자의 보급형 모델에 후면용 카메라모듈은 800만화소급 채택되면서 동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
- 또한 파트론은 안테나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 바탕으로 센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신규 사업 매출 가시화도 14년 이후에 높을 것으로 추정

(단위: 십억원 %)

구분	3Q12	2Q13	3Q13(F)	YoY	QoQ	3Q13F Consensus	Difference (%)
매출액	237	318	287	21.0	-9.8	305	-6.3
영업이익	26	39	33	25.6	-15.9	35	-6.3
순이익	24	12	13	-46.8	6.3	28	-117.8

구분	2011	2012	2013(F)	Growth		2013(F) Consensus	Difference (%)
				2012	2013		
매출액	426	873	1,178	105.0	35.0	1,196	-1.5
영업이익	30	91	137	201.1	50.1	138	-0.8
순이익	26	72	116	175.4	60.1	123	-6.0

자료: 파트론, W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코리아써킷
(007810)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목표주가 22,000
유지

현재주가 14,550
(13.10.07)

전자전자/휴대폰 업종

14년에 성장은 패키징에서
가능할 전망

투자 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는 22,000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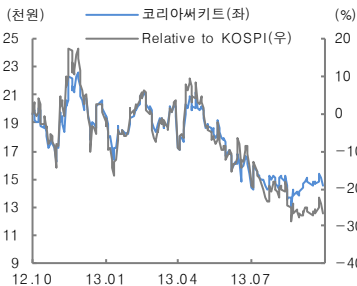
- 13년 3분기 실적은 당사 및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 4분기도 전분기대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른 모바일 부품업체대비 실적의 견고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 코리아써킷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는 22,000원을 유지
- 연결 13년 3분기 전체 매출(1,470억원)과 영업이익(136억원)은 각각 전분기대비 4.0%, 15.8% 감소할 전망. 4분기 매출(1,555억원)과 영업이익(140억원)은 전분기대비 5.8%, 2.7% 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국내 모바일 부품업체의 13년 3분기 실적이 전분기대비 감소한 현상인 점을 감안하면 코리아써킷의 실적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용 HDI 매출 확대가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분석

14년 HDI 분야에서 기술적 차별화를 유지, 패키징 분야로 사업 다각화

- 코리아써킷의 투자 초점은 1) 주력분야인 HDI의 기술변화에 동반하여 설비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전망. 삼성전자의 프리미엄급 및 준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보급형 전략은 경쟁사대비 높은 평균판매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 이는 휴대폰용 메인기판(HDI)가 3단 Stack Via Hole 중심으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에 적용될 것으로 분석
- 2) 동시에 HDI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차세대 주력분야로 생각하는 패키징에서 생산능력 증대 및 제품 차별화(POP 중심으로) 추진하여 매출 및 이익의 견고성을 14년 이후에 높여줄 것으로 판단

KOSPI	1994.42
시가총액	36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2,609원 / 13,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0억원
외국인지분율	1.90%
주요주주	영풍 외 7인 59.6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8	-5.8	-25.2	-25.2
상대수익률	0.8	-13.4	-27.7	-25.2



(단위: 십억원 %)

구분	3Q12	2Q13	3Q13(F)	YoY	QoQ	3Q13F Consensus	Difference (%)
매출액	122	153	147	20.5	-4.0	149	-1.1
영업이익	11	16	14	29.4	-15.8	14	-5.8
순이익	7	15	13	86.6	-13.0	15	-10.3

구분	2011	2012	2013(F)	Growth		2013(F) Consensus	Difference (%)
				2012	2013		
매출액	402	519	588	29.2	13.3	593	-0.7
영업이익	5	44	52	807.7	17.4	54	-3.8
순이익	14	38	46	171.0	21.1	49	-6.5

자료: 코리아써킷, WSEI,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대덕 GDS
(004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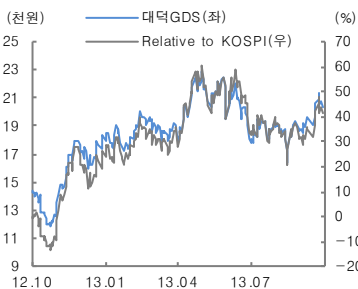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목표주가 27,000
하향
현재주가 (13.10.07) 20,400

전자전자/휴대폰 업종

KOSPI 1994.42
시가총액 43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4%
자본금(보통주) 1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2,900원 / 11,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7억원
외국인지분율 31.61%
주요주주 김정식 외 3인 19.56%
국민연금공단 6.6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4	12.7	6.8	45.2
상대수익률	7.2	3.6	3.2	45.3



밸류에이션으로 접근...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27,000원으로 하향

- 대덕GDS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 다만 목표주가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 중심 이 보급형 중심으로 전환에 따른 프리미엄 축소, 연성PCB 시장에서 생산능력 증대에 따른 경쟁심화 우려 가능성이 상존하는 관계로 27,000원으로 소폭 하향
- 연결, 13년 3분기 전체 매출(1,617억원)과 영업이익(199억원)은 각각 전분기대비 각각 12.3%, 36.1%씩 감소 전망. 이는 모바일 부품업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주가레션의 프리미엄 급 스마트폰 판매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13년 연간 영업이익은 901억원으로 12년 425억원대비 112% 증가할 것으로 추정

스마트기기용 MLB PCB를 공급하는 업체로 전환, 건조한 성장세 유지

- 대덕GDS에 대한 투자 초점은 1)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모바일 부품 업체 중 가장 높다는 것 임. 주가수익비율(P/E) 기준으로 13년 5.3배, 14년 5.8배로 업종 평균 8~9배대비 저평가인 것으로 분석
- 2) 13년 4분기에 연성PCB부문에서 생산능력 확대(신공장 가동)로 14년 추가적인 매출 증가 도 경쟁사대비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
- 3) 13년 및 14년에 연성PCB 부문의 성장 주도도 긍정적이지만 MLB 분야가 기존의 TV 중 심에서 스마트폰, 고사양인 HDI 중심으로 전환되는 점도 14년에 추가적인 마진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 대덕GDS의 14년은 가전용 PCB 및 연성PCB 업체에서 종합 MLB PCB 업 체로 도약하는 해가 될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2	2Q13	3Q13(F)	YoY	QoQ	3Q13F Consensus	Difference (%)
매출액	124	184	162	30.5	-12.3	164	-1.4
영업이익	13	31	20	56.9	-36.1	20	-2.1
순이익	11	28	18	59.2	-36.7	18	-2.3

구분	2011	2012	2013(F)	Growth		2013(F) Consensus	Difference (%)
				2012	2013		
매출액	503	543	669	8.0	23.2	667	0.3
영업이익	13	42	90	224.5	112.0	84	6.6
순이익	16	37	79	127.6	116.1	73	7.4

자료: 대덕GDS, WI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대덕전자
(008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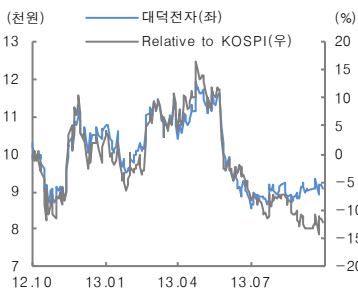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목표주가 12,500
유지
현재주가 9,290
(13.10.07)

전자전자/휴대폰 업종

KOSPI 1994.42
시가총액 45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4%
자본금(보통주) 2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2,150원 / 8,77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5억원
외국인지분율 17.09%
주요주주 김경식 외 5인 21.81%
신영자산운용 7.4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2	3.3	-15.2	-10.7
상대수익률	1.2	-5.0	-18.0	-10.6



14년을 기대 해보자.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2,500원 유지

- 대덕전자의 13년 3분기 매출(1,971억원)은 전분기대비 0.3% 증가, 영업이익(126억원)은 전분기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삼성전자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판매 약화 및 HDI 부문의 경쟁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3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대덕전자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는 12,500원을 유지
- 대덕전자에 대한 투자판단은 14년 FC CSP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FC CSP에 대한 매출 가세로 반도체용 중심의 PCB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따라서 단기적인 시가보다는 14년 이후를 기대하는 중장기 측면에 ‘매수(BUY)’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 또한 해당 투자도 현시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14년 FC CSP 시장 진출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전망

- 당사는 대덕전자가 14년에 신규 성장 동력원으로 판단하는 FC CSP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14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라인업 구조가 보급형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FC CSP 시장도 다변화되면서 안정적인 공급 확보 및 경쟁을 위해서 신규 공급선에 대한 추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
- 대덕전자는 FC CSP에 대한 초기의 선행투자를 집행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FC CSP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14년 FC CSP 시장 진출 및 매출 가시화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하여 14년 하반기 및 15년에 높은 성장세(매출, 이익)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

(단위: 십억원 %)

구분	3Q12	2Q13	3Q13(F)	YoY	QoQ	3Q13F Consensus	Difference (%)
매출액	187	197	197	5.2	0.3	202	-2.6
영업이익	8	14	13	65.5	-7.7	13	-4.7
순이익	5	14	14	174.4	-0.7	15	-3.7

구분	2011	2012	2013(F)	Growth		2013(F) Consensus	Difference (%)
				2012	2013		
매출액	656	751	768	14.5	2.3	778	-1.3
영업이익	50	59	44	17.2	-25.0	46	-4.0
순이익	42	48	51	13.3	5.6	52	-2.7

자료: 대덕전자, WSEI,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심텍
(036710)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박기범 (RA) 769,2956 kbpark04@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목표주가 9,500
유지

현재주가 8,890
(13.10.07)

전자전자/휴대폰 업종

KOSDAQ 528.44
시가총액 28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3%
자본금(보통주) 1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2,950원 / 7,51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1억원
외국인지분율 3.07%
주요주주 전세호 외 1인 25.73%
이만주 9.1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1	8.3	6.0	-31.4
상대수익률	5.1	7.7	9.8	-30.4



턴어라운드 는 진행중..

투자 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9,500원 유지

- 심텍의 13년 3분기 실적은 당사 및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기대하였던 영업이익 흑자전환은 4분기로 지연된 점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 투자 의견은 '매수(BUY)', 목표주가는 9,500원을 그대로 유지
- 13년 3분기의 매출은 1,44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0.9% 증가, 영업이익은 -24억원으로 적자가 축소될 전망. 13년 2월에 발생한 화재사고의 영향이 지속되는 점과 모바일향 매출 증가가 당초 예상대비 낮아진 점이 수익성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13년 4분기 매출은 1,58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9.3% 증가, 영업이익은 38억원으로 흑자전환될 전망

13년 4Q 기점으로 수익성 턴어라운드 예상

- 심텍에 대한 '매수(BUY)' 투자 의견은 유효하다고 판단. 13년 4분기에 전체 매출이 1,584억 원대 진입과 모바일 비중 확대에 마진율이 개선되면서 4분기에 4분기만에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
- 화재사고에 대한 영향이 마무리되면서 외주가공비 감소, 메모리향 공급축소 및 모바일향 공급능력 확대 등 전반적으로 수익구조가 14년에 호전될 것으로 분석
- 14년에 FC CSP 시장 참여 가능성과 SSD 모듈, MCP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13년대비 매출과 수익성이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3Q12	2Q13	3Q13(F)	YoY	QoQ	3Q13F Consensus	Difference (%)
매출액	166	131	145	-12.9	10.9	148	-1.9
영업이익	15	-9	-2	적전	적지	2	180.4
순이익	8	-11	-4	적전	적지	0	89.7

구분	2011	2012	2013(F)	Growth		2013(F) Consensus	Difference (%)
				2012	2013		
매출액	612	631	553	3.0	-12.3	561	-1.5
영업이익	63	46	-15	-26.0	적전	-4	74.3
순이익	42	25	-19	-41.5	적전	-11	41.6

자료: 심텍, WSE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10/07	10/04	10/02	10/01	9/30	10월 누적	13년 누적
개인	-44.9	-152.2	21.0	-148.0	3.7	-324	-4,851
외국인	226.0	421.4	224.2	187.0	114.3	1,059	1,537
기관계	-163.2	-247.8	-226.7	-27.4	-85.5	-665	4,622
금융투자	-62.3	-140.5	-40.5	17.9	-1.4	-225	1,058
보험	-7.4	1.7	7.3	15.9	-18.8	18	1,128
투신	-61.2	-112.5	-151.4	-41.7	-74.7	-367	-4,138
은행	-15.4	-3.3	8.4	10.5	-9.1	0	-2,145
기타금융	3.1	0.5	7.9	2.5	-4.0	14	-508
연기금	18.6	26.5	-1.3	-4.8	55.3	39	7,862
사모펀드	-36.3	-26.9	-57.6	-31.6	-34.8	-152	-209
국가·지방체	-2.3	6.7	0.6	4.0	2.0	9	1,574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SK 하이닉스	167.2	LG 디스플레이	36.0
삼성전자	49.0	LG 전자	12.9
기아차	36.4	NHN 엔터테인먼트	11.1
NAVER	17.3	삼성화재	7.9
현대차	10.7	현대건설	7.9
두산중공업	8.8	삼성SDI	6.6
KT	8.1	대림산업	6.1
한국타이어	6.7	롯데케미칼	3.5
한국전력	6.2	금호석유	3.5
LG 유플러스	5.7	현대위아	3.4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물산	10.8	기아차	48.1
삼성화재	8.5	SK 하이닉스	40.3
LG 디스플레이	8.4	NAVER	18.7
삼성SDI	7.0	현대차	10.2
OCI	6.0	삼성전자	10.1
현대건설	5.7	한국타이어	9.8
롯데케미칼	5.1	LG 유플러스	9.7
삼성전기	4.9	KT	8.8
금호석유	4.7	현대모비스	8.4
엔씨소프트	4.0	한국전력	7.9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파라다이스	5.1	하이비전시스템	2.8
다음	2.6	CJ E&M	2.7
서울반도체	1.9	실리콘웍스	1.7
성광벤드	1.7	에스엠	1.4
솔브레인	1.6	태광	1.3
메디톡스	1.3	컴투스	1.2
KH 바텍	1.1	제이콘텐트리	0.8
우리산업	1.1	덕산하이메탈	0.8
CJ 오쇼핑	0.9	상아프론테크	0.8
유진테크	0.7	멜파스	0.8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CJ E&M	3.6	컴투스	2.8
에스엠	1.8	차바이오앤	2.6
아미코젠	1.2	솔브레인	2.5
하림홀딩스	1.1	다음	2.3
미디어플렉스	1.1	파라다이스	2.1
유진테크	1.0	하이비전시스템	1.2
조이맥스	0.8	CJ 오쇼핑	1.1
한국정밀기계	0.8	성광벤드	1.1
코오롱생명과학	0.8	에스에프에이	1.0
원익IPS	0.7	메디톡스	1.0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전자	399.5	5.0 삼성물산	88.5	5.8
SK 하이닉스	380.9	8.8 LG 전자	64.3	-4.1
기아차	111.5	-3.4 NHN 엔터테인먼트	46.9	-3.4
NAVER	85.0	-1.6 LG 디스플레이	30.7	-7.9
현대차	57.3	-1.4 삼성SDI	25.8	0.3
SK 텔레콤	57.1	6.6 만도	15.9	-3.5
한국타이어	54.1	0.3 S-Oil	15.7	-2.3
KT	39.8	2.5 롯데쇼핑	12.2	0.7
삼성화재	28.7	5.3 롯데케미칼	11.7	-0.8
효성	28.6	-8.1 현대글로비스	10.7	1.4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물산	139.3	5.8 기아차	182.1	-3.4
삼성생명	45.0	0.0 LG 디스플레이	131.4	-7.9
롯데케미칼	31.6	-0.8 NAVER	81.9	-1.6
삼성전자	30.7	5.0 LG 전자	77.1	-4.1
현대글로비스	30.6	1.4 한국타이어	58.1	0.3
삼성전기	29.5	0.3 현대차	53.5	-1.4
한화케미칼	23.2	-0.2 LG 화학	44.6	-4.1
OCI	19.7	2.6 한국전력	36.3	-3.0
삼성SDI	14.2	0.3 POSCO	36.2	-2.3
NHN 엔터테인먼트	13.5	-3.4 LG 유플러스	33.2	-4.3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10/07	10/04	10/02	10/01	9/30	10월 누적	13년 누적
한국	204.8	438.7	221.5	169.7	118.4	1,035	2,946
대만	43.5	216.5	27.5	-54.4	-118.9	840	6,416
인도	—	0.0	0.0	-13.8	-83.6	113	13,516
태국	—	-74.3	-6.5	-12.2	-53.1	-97	-3,564
인도네시아	-11.9	-25.1	3.0	-22.6	-70.6	-57	-914
필리핀	7.6	21.6	-11.4	-5.0	-647.4	12	1,142
베트남	3.0	1.8	2.4	3.0	2.3	11	165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크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크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